광주, 車 100만대 생산기지 등 1488억 증액
전남, 보성~목포 철도 2억서 1502억으로

내년도 지역예산 국회 상임위서 얼마나 추가됐나

자동차 관련 사업 대거 반영
광주~완도 고속도로 건설
무안공항 활주로 확장 포함
예결위 감액 심사 통과 주목

정부안에서 삭감됐던 광주시와 전남도 현안사업들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상당 부분 되살아나 통과했다. 사업 예산도 일제히 증액됐다.

다만 17일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감액 심사를 통과해야만 최종 반영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의 막판 지역 예산확보 활동이 주목받고 있다.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 사업 등 신규 사업 대폭 반영=광주시는 이번 국회 상임위 예산 확보전에서 총 29건 1488억원이 신규 또는 증액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2조 1922억원) 127억원은 광주시와 전남도 두 곳에서 예산 반영액이 중복돼 있어 조율이 요구된다.

상임위 국비 확보활동에서는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증액이 가장 눈에 띈다.

민선 6기 광주시의 최대 현안인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총 사업비 8347억원)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즉시 착수할 수 있도록 30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또 내년도 자동차 관련 신규사업인 초경량 고강성 차체샤시 부품 기술개발 사업(440억원)은 15억원에서 70억원으로, 클린디젤자동차 핵심부품 산업 육성사업(1871억원)이 125억원에서 155억원으로 30억원이나 증액되는 등 총 13건 422억원이 신규 또는 증액됐다.

국토교통위에서는 정부 예산안에서 제외됐던 상무지구~첨단산단간 도로개설비(총 사업비 1645억원) 40억원이 신규 반영됐으며, 동광주~광산IC간 호남고속도로 확장(2762억원) 79억원, 용두~담양 대전간 도로확장(300억원) 10억원, 공공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주월초교·144억원) 10억원 등이 신규 사업으로 추가됐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광주 연구개발특구 육성 등 4건이 정부예산안 116억보다 39억 증액됐다.

환경노동위원회의 무등산 정상 방송통신시설 통합(250억원)은 정부안에 이어 상임위에서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3D콘텐츠 미디어산업 클러스터 구축(1175억원) 20억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진입로 개설(193억원) 193억원, 문화전당주변 문화민박촌 문화방 조성(293억원) 17억원,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1149억원) 18억원 등 6개 사업이 신규 또는 증액으로 761억원이나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현재 누리과정 예산 쟁점으로 심사가 보류된 상태다.

◇보성~목포 철도, 광주~완도 등 주요 현안 '재생'=국토교통위에서는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비 217억원, 무안국제공항 시설 확장비 200억원이 포함됐다. 또 정부안에서 고작 2억원에 그쳤던 보성~목포 철도건설비는 1502억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동서통합지대 조성(25억원), 신안 안좌~상사 도서개발(80억원) 등도 살아났고, 정부안에 반영된 국도건설비 및 연륙연도교 개설비도 사업비가 크게 상승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에서는 '빛가람사물인터넷 혁신클러스터 구축' 사업비 105억3000만원, 한의학연구원 건립비 25억원 등 7개 사업이 예결위로 넘어갔다.

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는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을 위한 동북아해양관광레저특구조성비 44억원, 광양크레인교체비 360억원, 천일염양성센터 운영비 16억원, 해양융복합소재산업화사업 30억원 등 36개 사업이 통과했다. 여수광양항만공사지원비도 정부안 500억원에서 1300억원으로 증액되는 등 농해수위 전남도 현안사업의 예산은 853억8400만원에서 3579억2400만원으로 4배 이상 올랐다.

환경노동위에서는 호혜원 축산단지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비(41억2000만원), 영산강환경정화선 건조비(44억원) 등을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

산업통상자원위에서는 기능성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비(25억원), 해양융복합 소재 산업화사업비(50억원), 항공우주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50억원), 하이퍼플라스틱 소재 연구기반구축(20억원), 전남뿌리기술지원센터 구축비(10억원) 등 미래산업 관련 예산을 거의 챙겼다.

튜닝산업지원시스템 구축비도 44억원에서 94억원으로, 차부품고급 브랜드화 연구개발사업비도 51억7700만원에서 81억7700만원으로 늘었다. 디자인융복합 마이크로 모빌리티 구축비와 차세대 마이크로레이저 기반구축비도 각각 30억원씩 증액돼 예결위 심사를 받게 됐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위 산하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17일부터 21일까지 감액심사를 한 뒤 24일~28일까지 증액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계수조정위원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완주 의원, 이춘석 예결위 간사, 강창희 의원, 우 원내대표, 백재현 정책위의장, 황주홍 의원. /연합뉴스

국회 '2주 예산 전쟁' 개막

與 "경제 살리기" 野 "5조원 삭감" 난타전 예고

예산안 조정소위 첫 회의

여야 간의 '2주 예산 전쟁'이 시작됐다.

국회는 16일 오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안 조정소위 첫 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예결위로 올라온 부처별 예산 심의에 돌입했다.

휴일에 예산안 조정소위를 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이달 말일까지인 예결위 심사 기한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올 해부터는 예산안이 11월말까지 예결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12월1일 정부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기 때문에 여야 모두 마음이 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여야가 오는 30일까지 예결위 심사가 완료하고 합의안을 만들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무상 보육(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놓고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데다 창조경제 예산, 경제 활성화 관련 예산 등도 여야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야당은 이른바 '박근혜표 예산'으로 규정한 예산 5조 원을 삭감해 복지 예산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어서 여야의 충돌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이 때문에 자칫 예결위 심의가 파행 또는 공전한다면 심의 기한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

새누리당은 시한을 넘기면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의 예산안 자동 부의 규정을 활용해 합의된 항목까지만 적용한 정부 원안을 12월2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30일까지 일부 항목만 미합의로 남는다면 며칠 더 시간을 달라고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미합의 상태에서 새누리당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다면 새정치연합의 강한 반발로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반대로 예산안 처리를 시한 이후로 미룬다면 '국회선진화법'도 헌법을 준수하는 데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여 자동 부의 규정은 '양날의 칼'이 될 전망이다.

이처럼 예산안을 둘러싼 전운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번 주부터는 여야가 각자 원하는 중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신경전도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무려 160건에 달하는 주요 법안을 선별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최근 밝혔다.

특히 30여개에 달하는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의 처리와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 혁신 과제인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 규제·공기업 개혁 법안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야당은 이 같은 경제 관련 법안의 대부분을 '가짜 민생법안'으로 규정하고 저지한다는 방침이어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국회 예결위 광주·전남 예산 확보 비상

새누리 예산안 조정소위 이정현 의원 막판에 빠져

새누리당이 국회 예산결산특위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에 내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던 이정현 의원을 최종 명단에서 제외했다. 대신 강원 출신의 김진태 의원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가뜩이나 차별을 받고 있는 호남지역의 국비 예산 확보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16일 홍문표(충남 홍성·예산) 예결위원장을 포함해 이학재(인천 서구·강화갑), 이한성(경북 문경·예천), 김도읍(부산 북구·강서을), 김진태(강원 춘천), 김희국(대구 중구·남구), 윤영석(경남 양산), 이현재(경기 하남) 의원 등 8명의 여당 몫 예산소위 최종 명단을 발표했다.

새누리당은 애초 7·30 재보선을 통해 순천·곡성에서 당선된 이정현 의원의 상징성을 감안, 예산소위에 포함할 방침이었지만 19대 국회 들어 강원 출신 의원이 예산소위에서 활동한 적이 없었던 점을 감안해 막판 교체를 결정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이 의원이 직접 나서 챙기는 이상으로 당 차원에서 호남 예산을 충분히 배려할 것"이라며 "강원도는 9명 의원이 전원 여당인데 그동안 예산소위에 계속 포함되지 못해 마지막에 김진태 의원을 참여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광주시 관계자는 "이 의원이 여당의 조정소위 위원으로 참여한다고 해서 의지가 됐는데 갑자기 바뀌어 당황이 된다"며 "야당의 힘 만으로 얼마나 지역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춘석(전북 익산갑), 강창일(제주 제주갑), 김현미(경기 고양 일산서구), 민병두(서울 동대문을), 박완주(충남 천안을), 송호창(경기 의왕·과천), 황주홍(장흥·강진·영암) 의원 등 7명을 일찌감치 확정한 바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선운 A4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

잔여세대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선착순 모집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14.11.12)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
(청약통장가입여부, 과거 당첨사실, 주택소유여부, 세대주여부, 거주지역, 소득 및 자산기준 등 자격제한 없음)

신청일정 및 장소

구 분	일 시	장 소
신청·접수 및 동호지정	2014.11.18(화)부터 공급완료시까지 (09:30 ~ 16:00)	● 2014.11.18일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26(치평동, 1247-4) 광주광역시도시공사 13층(대회의실)
계약체결		● 2014.11.19일 이후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26(치평동, 1247-4) 광주광역시도시공사 1층(고객행복센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인터넷 홈페이지(www.gmcc.co.kr) 공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임대문의 ☎062)600-6822~6

밝은광주안과

축 건물 전층 안과병원운영

6/7F 라식센터
4/5F 수술센터
2/3F 외래진료

○ 2년 연속 대한민국 의료서비스 대상
○ 라식수술실 4곳 및 레이저 7대 보유
○ 안구건조증 거의 없는 스마일 수술 시행
○ '레인드롭' 노안시력 교정술 시행

백내장 4無 수술
無통증 · 無출혈 · 無봉합 · 無입원 수술가능
백내장 +노안+난시를 단한번의 수술로 해결

1566·9988
▲ 운암동 방면
◀ 상무지구 방면
신세계백화점 ●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밝은광주안과의원